



김 은 영

한국고분자학회 제10대 회장

한국고분자 학회가 탄생 된지 30년이 되었다고 하니 창립 멤버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감개가 매우 무량하다. 처음에는 고분자 학회를 만들고자 10여명이 모여 근 1년간 준비 작업을 했다. 당시에는 고분자 분야가 화학회나 화공학회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때였다. 두 학회 모두 고분자 분야를 독립시키지 말고 학회의 분과위원회로 남기를 원했다. 1976년 고분자학회가 창립되었으나 나는 캐나다 워털루 대학으로 안식년을 떠났기 때문에 창립총회에는 참석하지 못 하였고 다음 해 가을에 귀국해서 다시 학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당시에는 학회가 탄생한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면에서 큰 압박을 받았고 또한 논문 수가 적어서 학회지 발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전무이사로 계시던 노익삼 박사가 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선배들이 많지만 김박사가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대 전무이사가 되어 학회살림을 맡게 되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었다. 기업에서 찬조금을 받을 때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어 많은 돈을 모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이어 코오롱 등 5대 섬유회사에서 100만원씩 찬조금을 받았고 일본 도레이사로부터 \$ 3,500을 기타 LG화학과 같은 고분자 관련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일단 재정문제는 해결을 보았다. 그리고 학회의 정상적인 업무 이외에 고분자 하계대학, 고분자 분석 등 산업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회를 활성화 시키는 물론 재정에도 큰 보탬을 주었다. 당시에는 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보다 더 활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979년 1월 처음으로 일본고분자학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협력차원에서 한일 고분자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79년 가을 총회에 앞서 1차 한일 심포지엄이 KIST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음 해에는 일본 경도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학회가 지금은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것은 그 동안 학회 일에 참여하였던 임원들이 자기일로 알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학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신 한양대학의 고 김계용 교수가 생각이 난다.

이제 고분자학회는 크게 성장하여 IUPAC 미니 심포지엄(1988)과 본 심포지엄(1996)을 무난히 치렀으며 그 후에도 크고 작은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30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살림 면에서도 년 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영문학회지가 발간된 지도 오래 되었다.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1,500명이나 된다고 하니 학회를 시작하던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제 고분자 학회는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남은 것은 더 우수한 논문을 우리 학회지나 국제 학회지에 발표하므로써 한국고분자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수한 젊음 후배들이 이루어야 할 숙제다.

초창기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나는 학회에 대해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학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끝으로 한국고분자 학회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빌며 학회를 끌고 가는 후배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김 정 엽

한국고분자학회 제12대 회장

지난 7월 5일 일간지에는 SCI 학술지에 한국과학자의 논문발표수가 세계에서 12위라고 한다. 그 뒤 며칠 뒤에는 외국의 한 교수가 한국의 자연계 교수의 1년 연구비가 5억 원은 되어야 외국교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충고하는 기사도 실렸다. 지나간 30년을 생각하면 이들 기사는 우리의 연구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분자학회를 창립하고 3년이 지난 후 일본고분자학회와의 공동학술발표회에서 우리 학회로부터 10편의 발표논문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든 시절이 주마등 같이 머리에 떠오른다.

내가 외국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1973년은 경제개발정책이 이미 10년 이상 수행되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었고 중공업의 기틀이 잡혀가면서 사회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 때는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전수 만으로도 힘에 벅찰 때라서 새로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기에는 시기상조였었다. 그러나 외국의 높은 수익성이 있는 중화학공업 연구실에서 창안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과 연구실의 활성화는 학회와 학술지를 통한 논문발표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정책입안자에 앞서 과학기술계에 강조하고 싶었었다.

그 당시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맞추어 고분자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70년대 초에 고분자학회의 창립이 거론되었지만 화학분야의 핵심학회인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와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상태였었다. 미국이나 일본의 왕성한 고분자분야 연구활동을 직접 체험한 나로서는 학회의 창립이 이 분야의 발전에 필요불가결 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주위에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 몇 번의 모임 끝에 학회창립을 결의하고 내가 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는 기존의 학회를 상대로 새 학회창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많은 시련 끝에 1977년 드디어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을 이루었다.

그 동안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한 학회의 질적 및 양적 성장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나의 왕성했던 지난 30년의 연구활동에서 터득한 연구실 철학은 내가 관여하는 학문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 보다는 그 분야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시킴으로써 그 분야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었다. 핵심학술지에 발표된 관련분야 논문을 열심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표를 하고 새로운 개념이 떠오르면 기록을 해두며 논문을 직접 쓰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었다.

과학자의 무대는 세계적이라야 하며 창의적 발상은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 속에 새겨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한국고분자학회와 고분자학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후배들에게 바란다.



이 후 성

한국고분자학회 제15대 회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韓國高分子學會가 어느덧 創立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학회의 발전에 一翼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感慨無量합니다. 그동안 韓國高分子學會의 발전상을 돌아보면, 명실 공히 飛躍的인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創立 당시 불과 180여 명이던 회원 수가 32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年間 학회 예산도 5억을 상회하는 규모로 발전하였습니다. 지난 春季總會 등록 참가자 수가 1600명을 넘었으며, 발표논문 수도 800편 이상이 되었다니, 초창기의 규모에 비하면 가히 비약적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學會誌에 한 해에 발표되는 논문의 수도 영문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에 약 100편, 국문지인 “폴리머”에도 비슷한 수의 논문이 실리고 있으며, 영문지의 impact factor 는 약 0.85, 국문지의 impact factor 도 약 0.32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학회 때 마다 학술발표장에 나가 발표장 분위기를 즐기는데, 그때 마다 학술 발표회장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내용과 수준이 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을 뿐 아니라, 열성도 대단하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韓國高分子學會의 국제적인 位相도 크게 향상되어, 1989년에는 IUPAC Macromolecular Symposium을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1994년에는 ICSM'94 의 개최를 후원하였으며, 창립 20주년인 1996년에는 IUPAC Macro Seoul'96 을, 1997년에는 Pacific Polymer Conference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이제 3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적인 항구 도시 부산에서 IUPAC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Polymers for Emerging Technologies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회원들의 학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동안 학회를 위하여 헌신한 운영진의 노고, 그리고 업계의 적극적인 후원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노력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남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모방하기에 바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의 이익이 되는 일에 매달리다가 기초연구를 다소 경시해온 경향이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초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러한 창의적인 것이 국제 경쟁력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韓國高分子學會는 국제적인 위상을 더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기초연구가 활성화되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창립 30주년 행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IUPAC International Symposium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